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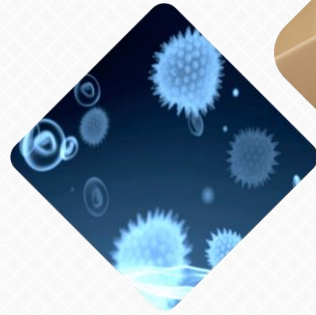


클로스트리듐 디피실균 감염관리 안내



삼성서울병원 / 감염관리실

클로스트리듐 디피실균 (C-difficile) 감염관리



클로스트리듐 디피실균이란?

항생제를 사용한 환자에서 장 속의 정상세균총이 감소하고 대신 클로스트리듐 디피실(Clostridium difficile)이라는 세균이 증식하여 설사 등 장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.

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 감염된 경우, 왜 접촉격리를 해야 하나요?

이 세균은 환자의 대변을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어 환경(예: 변기, 전화기, 체온계 등)을 오염시키는데 이에 접촉하는 다른 사람에게 세균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균은 환경에서 아포를 만들어 장시간 살아남기 때문에 강력한 소독을 해야만 제거됩니다.

클로스트리듐 디피실균 (C-difficile) 감염관리

환자와 보호자는
이렇게 해주세요



- 1 균이 검출되는 동안은 다른 환자와 접촉을 줄이고 가능하면 공공장소에 가지 않습니다.
- 2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만으로는 균이 죽지 않으므로 반드시 물과 비누 혹은 물과 소독제를 사용해 손씻기를 해야 합니다.
- 3 기저귀 교환 등과 같이 환자의 배변물을 다룰 때는 비닐얇치마(또는 가운), 장갑을 착용하고, 장갑을 벗은 후에 반드시 손씻기를 합니다.
- 4 다른 환자와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다른 환자의 침상에 가지 않습니다.
- 5 이 세균은 대변을 통해 배출되므로 환자는 화장실 이용 후 변기의 물을 2회 내리고, 변기 주변을 화장실에 비치된 소독제로 잘 뿌려주세요.
- 6 환자는 용변을 본 후에는 철저히 손씻기를 하며 환자의 용변을 치우거나 화장실 이동을 돕는 보호자도 반드시 장갑을 벗고 손을 씻어야 합니다.

클로스트리듐 디피실균 (C-difficile) 감염관리

접촉격리 시 필요한 물품은?

혈압계, 체온계, 청진기, 고무줄, 알코올 솜, 손소독제 등이며, 간호사실에서 제공하며, 해제 시 수거합니다.

격리해제 기준은?

내성균이 검출된 후 2주간 격리를 시행한 후 해제하거나 수일 간격으로 시행한 검사결과 3회 연속 음성인 경우에 해제하게 됩니다.

퇴원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퇴원 후 집에서는 락스 제품을 사용 방법에 따라 화장실 청소에 이용하십시오.



감사합니다

